

포천시 봄철 산불대비 非常체제 가동

관내 17개 주요명산 및 등산로 24개소 폐쇄

포천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관내 17개 주요명산에 대한 입산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요 등산로 24개소를 폐쇄했다.

그러나 국민관광지와 인접해 있는 명성산과 백운산, 운악산 그리고 왕방산에 대해서는 등산객들의 편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제하지 않는다.

포천시는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입산 통제된 산림에 무단 입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허가를 받은 후, 3월 4일까지 공동 소

각일정에 맞추어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포천시는 도비 지원을 받아 산불진화용 헬기를 3억 2천만 원에 입대해, 2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동배수자에 비상 대기시킨다.

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2개대 20명은 시청에서, 유급산불감시원 80명은 각 읍면동에 배치돼, 봄철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대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 산림복지과와 읍·면·동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목)는 지난 달 31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동부혈액원에서 전개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포천경찰서에서 실시한 헌혈운동에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위의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를 기증할 예정이다.

헌혈액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헌혈율은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며, 계절적·지역별 편중 현상으로 경기도의 경우 헌혈인구 감소에 따라 혈액이 급감하는 혈액수급 비상기라며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1인 헌혈시 15달러의 수입대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경찰서 직원들은 지난 달 31일 50여명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전개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포천경찰서 사랑의 헌혈에 同參

50여명 참여, 헌혈증서 기증할 예정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목)는 지난 달 31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동부혈액원에서 전개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포천경찰서에서 실시한 헌혈운동에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위의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를 기증할 예정이다.

헌혈액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헌혈율은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며, 계절적·지역별 편중 현상으로 경기도의 경우 헌혈인구 감소에 따라 혈액이 급감하는 혈액수급 비상기라며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1인 헌혈시 15달러의 수입대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목)는 지난 달 31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동부혈액원에서 전개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포천경찰서에서 실시한 헌혈운동에 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위의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를 기증할 예정이다.

헌혈액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헌혈율은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며, 계절적·지역별 편중 현상으로 경기도의 경우 헌혈인구 감소에 따라 혈액이 급감하는 혈액수급 비상기라며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1인 헌혈시 15달러의 수입대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소방서는포천시청 대강당에서 시청공무원 200여명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포천시청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敎育

포천소방서, 심장병환자 급증 추세 따라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에서는 지난 1일 오전 8시경 포천시청 3층 대강당에서 포천시청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심장병 환자의 급증 추세에 따라 주위의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된 교육내용은▶응급조치 필요성 및 준수사항에 관한 시청각 교육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다. 이날 교육에는 포천소방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구급대원이 직접 실습을 하고 참석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장강과 있고 입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우리지역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시·군 소속 및 경찰,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공무원을 국민안전 선두에 서게 함으로써 위급한 심장질환 환자의 생명을 높이는 한편, 대국민에 대한 안전사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혁신마일리지 제도" 도입·시행 계획

포천시는 기존의 전례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공직자 스스로 부단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행정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혁신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포천시의 혁신마일리지제도 도입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자치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패러다임으로는 주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 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천시는 시 홈페이지 개편 시, 직원전용 지식 정보공유방(혁신공유방)을 개설, 혁신활동 내용에 따라 소정의 개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혁신마일리지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혁신활동 참여자 및 부서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마일리지 참여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혁신아이디어 및 혁신평가 보고서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혁신마일리지 제도 성공을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는 기존의 전례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공직자 스스로 부단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행정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혁신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포천시의 혁신마일리지제도 도입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자치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패러다임으로는 주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 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천시는 시 홈페이지 개편 시, 직원전용 지식 정보공유방(혁신공유방)을 개설, 혁신활동 내용에 따라 소정의 개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혁신마일리지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혁신활동 참여자 및 부서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마일리지 참여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혁신아이디어 및 혁신평가 보고서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혁신마일리지 제도 성공을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는 시 홈페이지 개편 시, 직원전용 지식 정보공유방(혁신공유방)을 개설, 혁신활동 내용에 따라 소정의 개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혁신마일리지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혁신활동 참여자 및 부서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마일리지 참여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혁신아이디어 및 혁신평가 보고서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혁신마일리지 제도 성공을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소방서, 군부대 가상화재진압훈련 실시

소방관련 매월 실시 예정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지난 1일 포천시 자작동 15항공대 비행장에 대하여 가상화재 상황을 부여하여 신속한 소방력 출동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능력 배양을 향상시

키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소방차량 출동시 안전사고 방지 ▶소방통로 확보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과 적정한 진압차량 부서 ▶화재까지의 수관전개와 인명검색 활동 ▶화재 발생시 인명대피요령 등이다.

포천소방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소방훈련을 매달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소방서는 지난 1일 포천시 자작동 15항공대 비행장에 대하여 가상화재 상황을 부여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2월 1일부터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 접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1차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간에 걸쳐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일제강점 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 9. 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또한 강제동원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위원회 등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또는 포천시 주민자치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동포를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시에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다만,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이면 된다. 위원회에서는 피해신고 된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위령공간(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 및 사료관 등도 건립될 계획이다.

전기호 위원장은 "광복60주년이 되는 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받게 되어 감

개가 무량하다"고 밝히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는 60년 이상이 지난 일이고 피해규모도 방대하여 사실 조사가 및 피해자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분들의 고통과 한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과 후손들에게 다시는 남의 나라에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명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 및 후손 모두 피해신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군내면의용소방대의 이웃 사랑

군내면 의용소방대(대장 이선구)가 연이어 펼치는 이웃사랑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군내면 의용소방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해 말 군내면 지역의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찾아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고, 최근 구정을 맞이해 군내면의 노인정을 일일이 돌며 소주 1박스와 라면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선구 대장은 "이렇게 연중 펼쳐지는 군내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선행에 이유는 없다" 말한다.

또 이 대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데 "의용소방대가 돈이 많아서 펼치는 선행도 아니고, 및 사료관 등도 건립될 계획이다.

전기호 위원장은 "광복60주년이 되는 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받게 되어 감

군내면 의용소방대(대장 이선구)가 연이어 펼치는 이웃사랑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군내면 의용소방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해 말 군내면 지역의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찾아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고, 최근 구정을 맞이해 군내면의 노인정을 일일이 돌며 소주 1박스와 라면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선구 대장은 "이렇게 연중 펼쳐지는 군내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선행에 이유는 없다" 말한다.

또 이 대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데 "의용소방대가 돈이 많아서 펼치는 선행도 아니고, 및 사료관 등도 건립될 계획이다.

전기호 위원장은 "광복60주년이 되는 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받게 되어 감

우리 동네를 말한다 17

신북면 삼정2리 이장 최봉배

"진입로 확장이 급선무입니다"

"산간오지란 표현도 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북면에 위치한 포천시내에서 가깝다고는 여겨지겠지만 초행길로 삼정2리를 찾아가기란 제법 쉽지않은 않다.

343호선 지방도를 따라가다 허브아일랜드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갈월 2리 표석을 보고 오른 후, 갈월 2리 마을회관에서 우측으로 좁은 1차선도로의 길을 따라 굽이굽이 승용차로 10여분 들어가면 몇 채의 민가들이 웅기퉁기 모여 앉은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나라의 큰 난이 있었을 때 삼정리가 피신한 곳이라 해서 삼정리라 불린다는 이 마을에서 8년째 이장 일을 맡고 있는 최봉배(48·사진) 이장으로부터 삼정 2리에 대해 들어보았다.

삼정 2리는 28세대 78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마을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최 이장은 마을의 주동맥이 될 도로 건설 후 마을 발전의 비전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마을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기까지 맑아 작거나 외부인 및이 들어와 작품활동 등을 펼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자연환경을 이용한 주민유입의 가능성도 점쳐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인구 유입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마을 구성원들이 대부분 노인층이다 마을 진입로가 좁아 대중교통 등 차량의 통행이 불편해 외지인들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는 것이다.

최 이장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마을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마을진입도로의 확·포장의 대안이다"며 "현재 1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포장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일단 마을 도로문제 해결 후 주민들을 위한 농어촌공영버스노선 연계 등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포장으로 마을발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삼정 2리의 경제활동은 주로 농업으로 이루어진다.

최 이장은 "예전에는 작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시골의 낙후한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며 "그나마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어서 경제적인 농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민과 함께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최봉배 이장.

마을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최 이장은 마을의 주동맥이 될 도로 건설 후 마을 발전의 비전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마을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기까지 맑아 작거나 외부인 및이 들어와 작품활동 등을 펼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자연환경을 이용한 주민유입의 가능성도 점쳐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인구 유입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마을 구성원들이 대부분 노인층이다 마을 진입로가 좁아 대중교통 등 차량의 통행이 불편해 외지인들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는 것이다.

최 이장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마을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마을진입도로의 확·포장의 대안이다"며 "현재 1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포장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일단 마을 도로문제 해결 후 주민들을 위한 농어촌공영버스노선 연계 등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포장으로 마을발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삼정 2리의 경제활동은 주로 농업으로 이루어진다.

최 이장은 "예전에는 작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시골의 낙후한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며 "그나마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어서 경제적인 농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마을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최 이장은 마을의 주동맥이 될 도로 건설 후 마을 발전의 비전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마을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기까지 맑아 작거나 외부인 및이 들어와 작품활동 등을 펼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자연환경을 이용한 주민유입의 가능성도 점쳐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인구 유입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마을 구성원들이 대부분 노인층이다 마을 진입로가 좁아 대중교통 등 차량의 통행이 불편해 외지인들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는 것이다.

최 이장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마을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마을진입도로의 확·포장의 대안이다"며 "현재 1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포장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일단 마을 도로문제 해결 후 주민들을 위한 농어촌공영버스노선 연계 등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포장으로 마을발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삼정 2리의 경제활동은 주로 농업으로 이루어진다.

최 이장은 "예전에는 작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시골의 낙후한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며 "그나마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어서 경제적인 농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마을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최 이장은 마을의 주동맥이 될 도로 건설 후 마을 발전의 비전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마을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기까지 맑아 작거나 외부인 및이 들어와 작품활동 등을 펼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자연환경을 이용한 주민유입의 가능성도 점쳐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이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인구 유입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마을 구성원들이 대부분 노인층이다 마을 진입로가 좁아 대중교통 등 차량의 통행이 불편해 외지인들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는 것이다.

최 이장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마을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마을진입도로의 확·포장의 대안이다"며 "현재 1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포장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일단 마을 도로문제 해결 후 주민들을 위한 농어촌공영버스노선 연계 등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포장으로 마을발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삼정 2리의 경제활동은 주로 농업으로 이루어진다.

최 이장은 "예전에는 작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시골의 낙후한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며 "그나마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어서 경제적인 농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맛의 차별화를 선언한 **한식전문 전주식당**이 정성을 다한 새로운 메뉴를 고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구찜/탕(대 35,000 중 25,000)
꽃게찜/탕(대 55,000 중 35,000)
해물탕(대 40,000 중 30,000)
낙곱전골(대 30,000 중 20,000)
낙지전골(대 30,000 중 20,000)
제주갈치조림 (대 40,000 중 30,000 소 20,000)
가마솥정식백반 7,000
부대찌개 5,000
삼겹살 6,000

◆백반 가격인하 6,000 → 5,000

<특선메뉴>
 해물탕/꽃게찜·탕/제주갈치조림

찾아오시는 길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8/전화 : 031-542-3912/대표 : 김 형 준